

#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 사과 국민의 뜻·촛불정신 못 헤아려”

### 이낙연, 개헌·군공항 이전 등 ‘광주구상’ 제시

대권을 향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을 핵심으로 한 ‘광주 구상’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 성난 ‘호남 민심’을 달랬다.

이 전 대표는 16일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기본권 강화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광주 구상’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는 5·18 이후 7년의 기다림 끝에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며 “이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제안한다”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한다.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더 강력하고 세밀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평등 완화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구조로 바꿔 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아홉 차례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 구조에 집중돼 국민의 삶이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으나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며 “개헌은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과거 성급한 사면 거론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으나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야 하고, 지지부진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광주-대구 KTX,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이 철도는 국가균형발전과 동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화합을 위해 긴요하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 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면서 “국방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국방부는 소극적이다.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청와대와 총리실이 나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광주에 머물며 호남 민심을 챙기고 있는 이 전 대표는 고향에 대한 간절함도 내비쳤다. 그는 “저는 전남에서 나고 광주에서 자랐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는 모교 학생들의 가르침은 제 생애를 지배해 왔다”면서 “오늘까지 저를 키워준 광주·전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저평가 우량주→고평가 전환 과정 빠른 출발보다 골인이 중요하다”

### 정세균, 전북 찍고 2박3일 광주·전남 방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6일 “저평가 우량주에서 고평가 우량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지 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제대로 평가받는 시기가 오고 있는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누가) 빨리 출발한다고 골인되는 것은 아니며, 골인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른 주자들보다 뒤늦게 대권 가도에 뛰어 들었지만 ‘필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고향인) 전북에서 많이 지지해줘서 변화가 생기면, 그 나비효과로 (전국적으로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믿는다”며 “전북이 마중물이 되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12~15일 전북 곳곳을 돌며 지역 민심을 듣는 등 대선 행보의 보폭을 넓혔다.

정 전 총리는 “(전북 방문에서) 신세대들과 소통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역량도 뛰어나고 열정과 자신감을 가진 그들에게서 밝은 미래를 엿보았고, 불평등 등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임감도 느꼈다”고 소회를 내비쳤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대선 경선 연기론’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밝히는 부적절하다. 따로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맞아 K-방역을 지휘하며 성과를 냈다”며 “백신접종 등을 통해 코로나19는 안정될 것이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그 상흔은 깊고 넓어 치유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단순한 원상회복이 아니라 일상·경제·공동체를 회복해서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담대한 회복’을 실현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동석해 정 전 총리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여순사건 위령비 참배를 시작으로 2박 3일의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수시 만흥동에 자리한 여순사건 위령비 참배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김희재 국회의원, 강경희 도의원 등이 동행했다.

정 전 총리는 위령비 참배에 이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총리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선언’의 의미와 실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17일에는 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 대상지를 찾아 민심을 살피고, 18일에는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되는 기념식에 참석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연합뉴스

## 민주, 집값의 90%까지 완화?

### 청년·신혼부부 LTV 70+20% 검토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기지역·특기과외지역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줄자는 것이다. 여기에 현금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조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복안이다.

한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는 세대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필요한 경우 일부 소득 기준까지 조정하면 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 없이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여러 제안이 나온다. 중부세 부과기준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10억~11억원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되는 분위기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했던 ‘누구나 집’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얻는 형태다. 당 특위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윤석열 세일즈’

### 일부선 ‘인연팔이’ 비판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앞다퉈 ‘윤석열 마케팅’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당부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그의 지지층에 다가서는 게 당권의 열쇠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윤 전 총장의 이름이 더 많이 거론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밝혔다.

개인적인 인연을 한껏 부각하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대구지역 판사 출신의 주호영 의원은 지난 13일 당 전·현직 의원 모임 마포포럼 강연에서 “대구지검에 3차례 근무한 인연으로 자주 만났다. 서울에서 사는 집도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 시절 검사직에서 사퇴한 김용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직하는 날 마지막으로 빚고 나온 분이 윤 전 총장”이라며 당권주자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이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세일즈’로 흐르는 당권레이스는 뚜렷한 차기 대권주자가 보이지 않는 당내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일각에선 4·7재보선 압승으로 모처럼 형성된 야권의 상승모멘텀을 되레 잠식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당권주자들이 ‘윤석열 인연 찾기’에 비관적인 목소리를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매력적인 정당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이른바 자강론이다. 홍문표 의원은 “우리 당이 자강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양극화 해소 머리 맞댄다

### 여야 97명, 국회특위 추진

여야 국회의원 97명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16일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양극화해소대책 특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양극화해소기본법’ 제정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양극화를 줄이는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활동 기한은 1년이다.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60명, 국민의힘 22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 무소속 2명 등 97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약 준주거, 담양양각 주거2중**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립 관공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2)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 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면 통광주빌딩 내**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 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 2021학년도 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향상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신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주요일정
 

구분	일정	진소 및 안내사항
입학원서 작성 (인터넷으로만 작성)	2021. 6. 1.(화) 09:00 ~ 6. 10.(목) 18:00	산업대학원 홈페이지(http://gsit.jnu.ac.kr) 원서 작성(입력) 후 원서 등록 클릭
구비서류 제출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2021. 6. 1.(화) 09:00 ~ 6. 10.(목) 18:00	• 제출장소: 산업대학원 행정실 공과대학 4호관 202호 • 제출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우61186
전형일시	2021. 6. 23.(수) 10:00 ~	지원학과(전공)에서 지정된 장소 (신분증 반드시 지참)
합격자 발표	2021. 7. 7.(수) 10: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전공)
  -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친환경농업학과/식품공학/지역환경자원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계약학과)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